

21세기를 지향하는 건강증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

1997. 7.

역자주:

제4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대회가 1997년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계보건기구 본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동 주최로 3차대회 이후 6년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4차대회에는 WHO의 초청을 받은 78개국의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의 신영수 원장과 본인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선언문은 대회의 최종 주요 산출물로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시의에 맞게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느껴 감히 초역을 감행하였습니다. 번역문보다는 원문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계속 토론하여 국문판 자카르타 선언문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선언문의 내용이 우리 나라에도 적용되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7년 7월 28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보 김 공 현

배경 :

제4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대회가 "새시대를 위한 새로운 역군들 : 건강증진을 21세기로 이끌어 들이는 자"들이란 스로건을 내걸고 국제보건전략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알마아타 선언을 통하여 만인을 위한 건강이란 세계적 전략과 일차보건의료 원리에 대하여 야심찬 공약을 공표한지 20년이 지났으며, 제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대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지도 10년이 되었다. 이 1차 대회는 대회 개최 이후로 건강증진에 관한 영감과 지침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 헌장을 결과로 공표하였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개최된 국제대회와 회의들에서는 건강증진에 있어서 판건이 되는 전략들, 예를 들면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아데레이드, 1988)과 "건강에 대한 지원적 환경"(선드볼, 1991) 등의 의미와 적절성을 보다 명백하게 하였다.

제4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대회는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된 대회이고 또한 민간부문이 건강증진의 지원에 관여한 최초의 대회이기도 하다. 이 대회는 건강증진의 효과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게된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였고, 건강의 결정요소를 재검토하였으며, 21세기에서 건강을 증진함에 있어서 도전하는 것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략과 방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건강증진은 가치가 있는 투자이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사회·경제적 개발에 필수적인 것이다.

건강증진은 보건개발의 필수적 요소의 하나로 점점 더 널리 인식되고 있다.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증가시키고 개선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건강증진은 투자와 행동을 통하여 건강의 결정요소에 작용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최대한 획득하게 하고, 건강에 있어서 형평스럽지 못한 것들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며, 인간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한다. 궁극적 목표는 건강 여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국가간 집단간에 존재하는 건강 여명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있다.

건강증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은 다음 세기에서의 건강증진에 대한 비전과 초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21세기에서 건강의 결정요소와 대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끌어들이겠다는 국제대회 참가자들의 굳은 서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건강의 결정요소 : 새로운 도전들

건강의 전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평화, 주거, 교육, 사회적 안정, 사회적 관계들, 식량, 수입, 여성의 역량, 안정된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 사회 정의, 인간의 권리와 형평에 대한 존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빈곤이다.

도시화와 같은 인구학적 추세, 노인 수와 만성병 유병율의 증가, 증가되는 착좌 행동, 항생제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약품들에 대한 저항, 증가되고 있는 약물의 남용과 사회적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은 수백만명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그리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감염성 질병과 보다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긴급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의 결정요소의 변화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건강증진을 전개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요인들 역시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는 경제의 세계적 통합, 자본 시장과 무역, 매체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자원의 무책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퇴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 세계에 걸쳐 가치관과 일생동안의 생활 양식 그리고 삶의 조건들을 형성하게 한다. 이들 변화 가운데는 예를 들면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과 같은 것은 건강을 위하여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담배의 국제무역 같은 것들은 아주 주요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건강증진은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 도처에서 수행된 조사 연구와 사례 연구는 건강증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전략은 건강을 결정하는 생활 양식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조건을 개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건강증진은 건강에 있어서 보다 나은 형평을 성취하는 실천적 접근 방법이다.

오타와 헌장의 5대 전략은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 ▶ 건전한 공공정책을 수립한다
- ▶ 지원적 환경을 창출한다
- ▶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한다
- ▶ 개인적 수기를 개발한다
- ▶ 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현재 다음과 같은 증거가 분명히 있다 :

· 종합적 보건개발 접근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앞에서 지정한 5대 전략을 조합한 전략을 이용하는 접근 방법들이 어떤 단일 전략만을 이용하는 접근 방법들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 장(場)들은 종합적 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장이란 대도시, 섬, 도시, 시군, 지역의 지역사회, 시장터, 학교, 작업장, 그리고 보건의료 시설 등이 포함된다.

· 참여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참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건강증진 활동과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 보건에 관한 학습은 참여를 조장한다.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효과적인 참여와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역량의 성취에 필수적이다.

이상에서 열거된 전략들은 건강증진의 핵심적 요소이며 어떤 국가에서나 적절하다.

새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건강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수년동안의 도전들이란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부문들과 지역의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증진에 대한 잠재력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의 각 부문간에,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간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에 존재하는 전통적 경계선들을 뚫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 협동이 필수적이다. 특별히 이것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통치체계의 모든 수준의 상이한 부문간에 평등한 기초 위에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순위

1. 건강을 위한 사회 책임을 조장한다

의사 결정자들은 사회 책임에 대하여 분명한 언질을 주어야 한다.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여야 한다.

-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회피한다
-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실하게 한다
- 담배와 무기 같은 본래부터 해로운 상품이나 물질의 생산과 거래를 억제하고 건강에 해로운 마케팅의 실천을 억제한다
- 시장터에 있는 시민과 산업장에 있는 개인을 안전하게 한다
- 형평에 초점을 맞춘 건강 영향 평가를 정책 개발의 통합적 부분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2. 보건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의 보건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보건개발을 위한 투자는 보건 부문은 물론이고 교육, 주택을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하여 진실로 다부문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보건을 위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현존의 투자에 대한 방향의 재설정 -국내에 있어서나 국가간에 있어서나- 은 인간 개발, 보건, 그리고 삶의 질을 유의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에 대한 투자는 특정한 집단, 예를 들면 여성, 아동, 노인, 토착민, 빈곤층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건강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확대한다

건강증진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통치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여러 상이한 부문간에 보건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개발을 요구한다. 기존의 동반자 관계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형성을 위한 잠재력이 추구되어야 한다.

동반자 관계는 전문적 기술과 일상적 수기 그리고 자원의 나눔을 통하여 건강을 위한 상호 편익을 제공한다. 각 동반자 관계는 투명하여야 하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된 윤리적 원리와 상호 이해 그리고 존경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WHO 지침은 이점들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능력을 제고하고 개인에게 역량을 부여한다

건강증진은 사람들을 축으로 하여서나 사람들을 지향하여서가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시행된다. 건강증진은 개인이 행동을 취하는 능력과 집단, 조직, 혹은 지역사회 등의 건강의 결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 능력 등을 개선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실천적 교육, 지도력 훈련,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개인의 역량 강화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과 변화를 효과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의사소통이나 새로운 정보 매체들은 꼭 같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한다. 사회적, 문화적, 연적 자원들이 혁신적 방법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5. 건강증진을 위한 하부구조를 확보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하부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지방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찾아져야 한다. 정부, 비정부 조직, 교육 기관 그리고 민간 부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개발되어야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이 최대한 동원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강을 위한 장”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조직적 기반을 대표한다. 새로운 건강 도전이란 새롭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부문간 조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가내 및 국가간에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들이 각 장에서 효과적인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력 기술의 훈련과 실천이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조사 연구와 프로젝트의 보고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관한 경험의 문서화가 기획, 실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정치적, 법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개발하여야 한다.

행동을 요구한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정부,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 선언문의 주요 메시지를 나눌 것과 제안된 행동을 실천하며, 제5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것을 서약하였다.

세계의 건강증진을 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은 세계 건강증진 동맹의 결성을 지지하였다. 이 동맹의 목표는 이 선언문에 표현된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의 우선 순위를 진전시키는 데 있다.

동맹의 우선 순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 변화되는 건강의 결정 요소에 대한 인식의 향상
- 보건개발을 위한 네트워크와 협조의 개발 지원
-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의 동원
- 최선의 실천에 관한 지식의 축적
- 공동 학습의 부여
- 행동에 있어서 결속의 촉진
- 건강증진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의 조장

각국의 중앙 정부들은 국내와 함께 국가간에 건강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것을 요구되었다.

97년 자카르타 대회 참석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건강증진 동맹을 결성하고 회원국들이 자카르타 대회의 결과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적 위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역할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WHO가 각국의 정부, 비정부 조직, 개발 은행, UN 기구, 다지역 조직체, 상무 기관, 노동운동단체, 협동조합, 그리고 민간 부문 등이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데 관여하게 하는 것이다.

.....